

2024년 12월 2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비관론의 통과점

한국 증시는 1) 미국의 11월 비농업 고용, 11월 ISM 제조업 PMI 등 메이저 경제지표, 2) 12월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3) 파월 의장 등 주력 연준 인사들 발언, 4) 달러/엔 환율 변화, 5) 국내 증시 투매 현상 진정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바닥 확인 구간에 들어갈 전망 (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420~2,550pt).

지난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투매현상으로 동반 급락하는 등 국내 증시를 둘러싼 비관론의 수위가 극도로 높아진 상황. 하지만 수출 부진 포함 국내 성장 둔화 리스크 우려는 지난주 뿐만 아니라 11월 이후 국내 증시가 역대급 부진세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기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 또 밸류에이션 상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이나 국내 수출주 실적 전망에 영향을 주는 미국 11월 ISM 제조업 PMI 결과를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찾을 가능성 존재. 주 초반부터 악화될 대로 악화된 투자심리의 극적인 개선은 쉽지 않을 수 있겠으나, 상기 내용을 고려 시 국내 증시에 대한 추가 비중 축소 전략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Market/ESG 이성훈
sh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29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연기금 저가 매수세, 한은의 깜짝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통상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된 영향으로 양 지수는 하락 마감(KOSPI -1.81%, KOSDAQ +0.17%)

주 초반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CEO의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미국 시장 금리 급등세 진정 등에 힘입어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주력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급등. 특히, 차기 재무장관으로 지목된 스콧 베센트는 시장 친화적이고 비교적 온건한 정책 기조가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의 정책적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한 점이 상승 동인으로 작용.

그러나, 이후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이후 행정명령으로 중국(10%), 멕시코 및 캐나다(25%)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관세 리스크 부각되며 국내 증시는 하락세로 전환. 여기에 이스라엘-헤즈볼라가 휴전에 임박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일론 머스크가 향후 국방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자 그간 상승했던 방산주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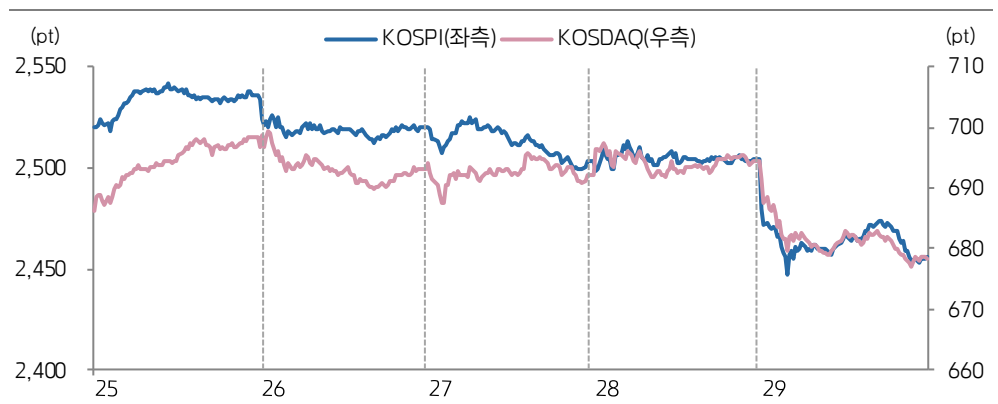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정책적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의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코멘트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규제 등이 국내 반도체 업종의 투자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편,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부진하며 경기 우려가 가중된 가운데 일본의 11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3개월 만에 상승폭 확대. 이로 인해 12월 중순 예정된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엔화가 강세를 보인 점이 주 막판 국내 증시의 낙폭 확대 배경.

업종별로 통신업(+7.6%), 철강금속(+4.9%), 의약품(+4.32%), 섬유 의복(+3.49%), 서비스업(+3.46%)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운수장비(-5.67%), 기계(-4.97%), 전기전자(-4.78%), 화학(-2.85%), 금융업(-1.1%)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1조 7,185억원)은 서비스업(+2,339억원), 통신업(+572억원), 전기가스업(+403억원), 운수차고(+274억원) 순으로 순매수, 기관(+8,776억원)은 서비스업(+2,844억원), 금융업(+2,065억원), 의약품(+1,873억원), 통신업(+1,168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12월 2일	월	한국	수출액 (YoY) (1 일)	11 월	2.8%	4.6%
		수입액 (YoY) (1 일)	11 월	-1.5%	1.7%	
		무역수지 (1 일)	11 월	4.90B	3.15B	
	중국	Caixin 제조업 PMI	11 월	-	50.3	
	유로존	제조업 PMI	11 월	-	45.2	
		실업률	10 월	-	6.3%	
	미국	제조업 PMI	11 월	48.8	48.8	
		ISM 제조업 PMI	11 월	47.6	46.5	
		발언	월러 미연준이사, 뉴욕 연은 총재			
	12월 3일	화	한국	CPI (YoY)	11 월	1.7%
CPI (MoM)			11 월	0.1%	0.0%	
미국		노동부 JOLTS (구인, 이직 보고서)	10 월	7.510M	7.443M	
발언		쿠글러 미연준이사, 시카고 연은 총재				
12월 4일	수	중국	Caixin 서비스 PMI	11 월	-	52.0
		유로존	서비스 PMI	11 월	-	49.2
			PPI (MoM)	10 월	-	-0.6%
		PPI (YoY)	10 월	-	-3.4%	
	미국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11 월	165K	233K	
		마켓 종합 PMI	11 월	-	55.3	
		서비스 PMI	11 월	-	57.0	
		ISM 비제조업 PMI	11 월	55.5	56	
	실적	세일즈포스				
	발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파월 미연준의장				
12월 5일	목	한국	GDP (YoY)	3 분기	-	1.5%
		GDP (QoQ)	3 분기	-	0.1%	
	미국	무역수지	10 월	-75.0B	-84.4B	
	실적	사립시스				
12월 6일	금	유로존	GDP (QoQ)	3 분기	-	0.4%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YoY)	11 월	3.9%	4.0%
	평균 시간당 임금 (MoM)		11 월	0.3%	0.4%	
	비농업고용자수		11 월	200K	12K	
	경제활동참가율		11 월	-	62.6%	
	실업률		11 월	4.2%	4.1%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 예상		12 월	-	2.6%	
	미시간대 5-10년 기대인플레이 예상		12 월	-	3.2%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		12 월	-	76.9	
	발언	보우먼 미연준이사 시카고, 클리블랜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미국의 11월 비농업 고용, 11월 ISM 제조업 PMI 등 메이저 경제지표, 2) 12월 미 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3) 파월 의장 등 주력 연준 인사들 발언, 4) 달러/엔 환율 변화, 5) 국내 증시 투매 현상 진정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바닥 확인 구간에 들어갈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410~2,550pt).

29일(금) 미국 증시는 조기 폐장에 따른 거래 부진에도, 트럼프 정부의 대중 반도체 규제 수위 하락 가능성, 연말 소비시즌 기대감, 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반도체, 소비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다우 +0.4%, S&P500 +0.6%, 나스닥 +0.8%).

이날 미국 금리 하락은 트럼프 2기 정부 정책의 강도가 우려했던 것 보다 덜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향후에도 트럼프 관련 뉴스플로우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주에는 매크로 민감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11월 내내 시장 참여자들을 수시로 혼란에 빠뜨렸던 금리 상승, 달러 강세가 미국 성장을 독주, 연준의 12월 금리 동결 우려 등에서 기인했던 만큼, 주중 매크로 이벤트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

데이터 측면에서 차주까지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벤트는 6일(금) 예정된 11월 비농업 고용이 해당될 것. 지난 10월 고용은 1.2만건대로 9월(22.3만건)에 비해 대폭 급감했지만, 이는 허리케인 여파, 보잉 파업 사태 등 일시적인 요인이 개입되었기에 시장에서도 중요성을 높게 가져가지 않았음. 이번 11월 고용 데이터는 일회성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 범주로 복귀하는 만큼, 비농업 신규고용(컨센 20.0만건), 실업률(컨센 4.2%) 결과에 따라 12월 FOMC 전망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1일 기준, Fed watch 상 12월 인하확률 66%). 같은 맥락에서 주중 예정된 파월 의장, 윌러 연준 이사, 뉴욕 연은 총재 등 주력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중요할 전망이다.

11월 중 156엔까지 도달했던 달러/엔이 지난주 149엔대까지 급락하는 등 엔화 강세가 다시 출현했다는 점도 신경쓰이는 부분.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의 표면적인 급락 이유 중 하나로 8월과 같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불안감이 지목되는 등 엔화 항방도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그렇지만 BOJ 12월 인상설은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에 노출된 재료였으며, 엔-캐리 청산 또한 시장에서 내성이 생긴 상태라고 판단. 따라서 이번주 중 달러/엔이 140엔대 초반으로 급락하지 않는 이상,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력과 지속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한편, 지난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투매현상으로 동반 급락하는 등 국내 증시를 둘러싼 비관론의 수위가 극도로 높아진 상황(코스피 -1.9%, 코스닥 -2.3%). 그 가운데 주말 중 발표된 11월 한국 수출이 1.4%(YoY)로 전월(4.6%) 및 컨센(2.8%)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음. 반도체(+30.8%), 컴퓨터(+122.3%), 선박(+70.8%), 바이오헬스(+19.6%), 철강(+1.3%)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이 모두 부진하는 등 업종별로도 양극화가 심해진 것도 마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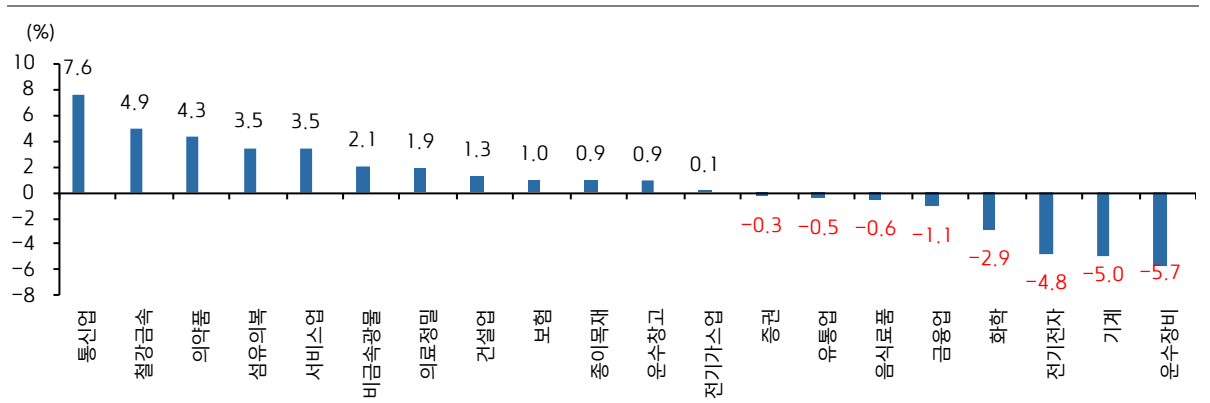
하지만 수출 부진 포함 국내 성장 둔화 리스크 우려는 지난주 뿐만 아니라 11월 이후 국내 증시가 역대급 부진세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기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 또 밸류에이션 상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이나 국내 수출주 실적 전망에 영향을 주는 미국 11월 ISM 제조업 PMI 결과를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찾을 가능성 존재. 주 초반부터 V자 급반등을 야기할 만한 투자심리의 극적인 개선은 쉽지 않을 수 있겠으나, 상기 내용을 고려 시 국내 증시에 대한 추가 비중 축소 전략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455.91	-2.0	-1.8	-6.2	-7.5
대형주	2,447.96	-2.1	-2.2	-6.5	-7.7
중형주	2,728.27	-1.5	0.5	-4.4	-2.1
소형주	2,094.67	-1.4	-0.8	-4.1	-8.4
코스피 200	325.45	-1.8	-2.1	-6.6	-9.1
코스닥	678.19	-2.3	0.2	-8.9	-21.7
대형주	1,605.78	-3.2	-0.8	-11.8	-20.9
중형주	593.42	-1.6	1.2	-6.3	-17.0
소형주	2,227.81	-1.5	0.4	-6.0	-20.6
코스닥 150	1,133.83	-3.0	-0.8	-11.1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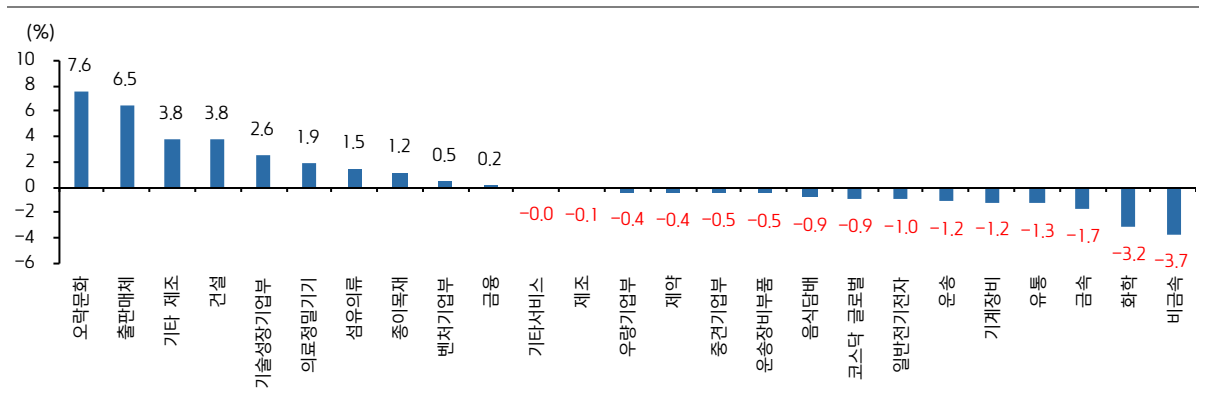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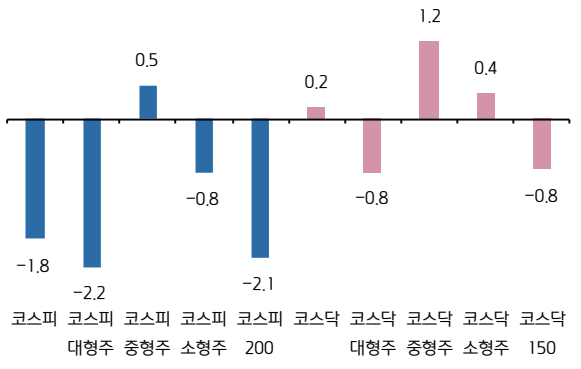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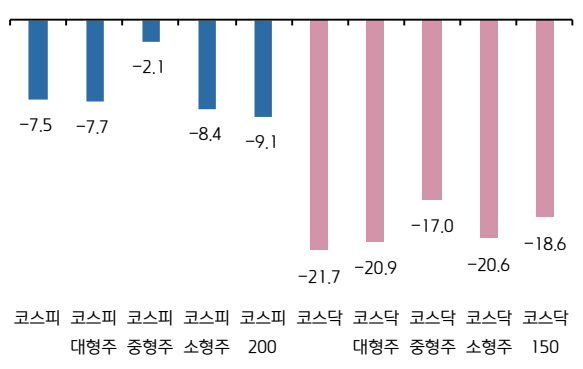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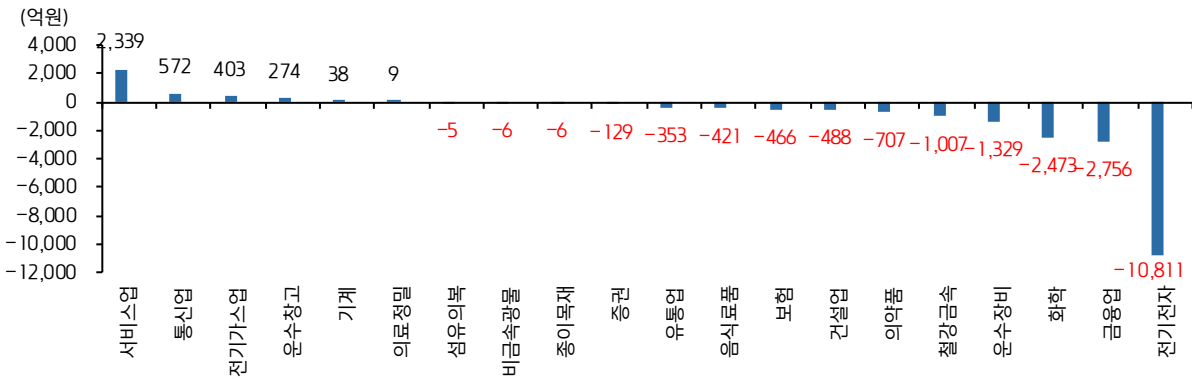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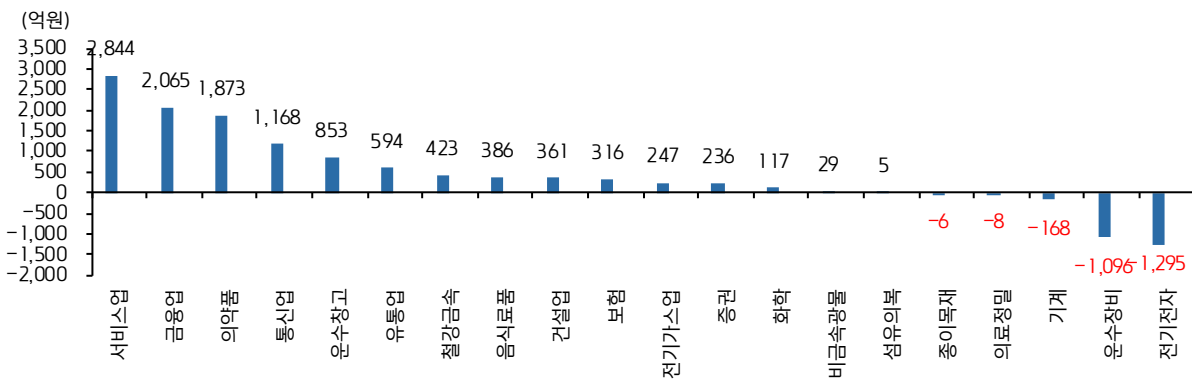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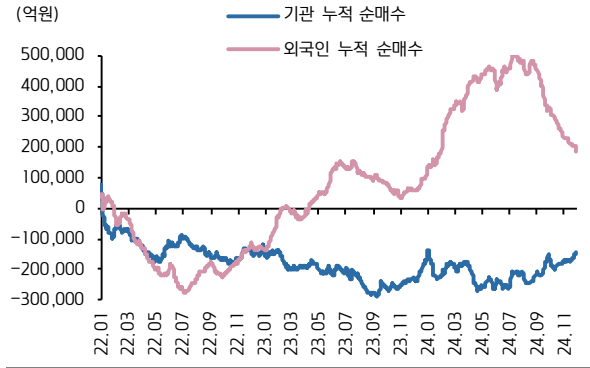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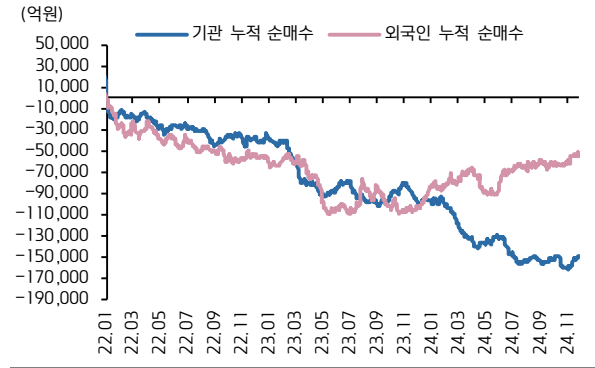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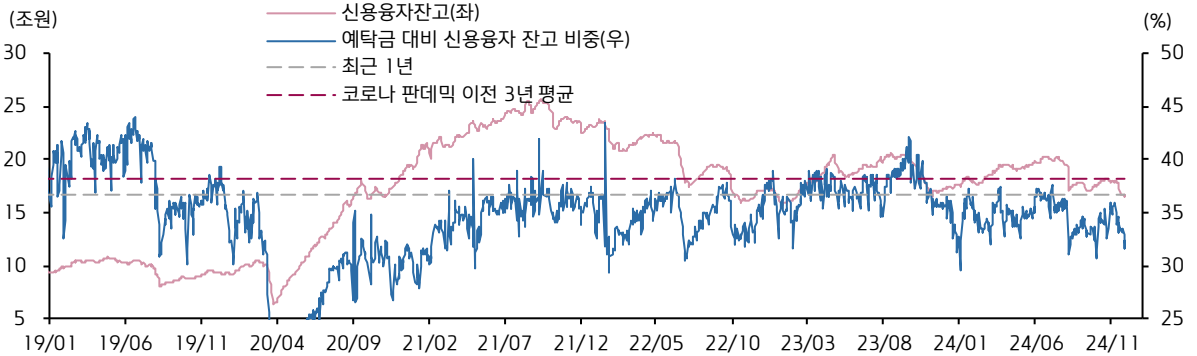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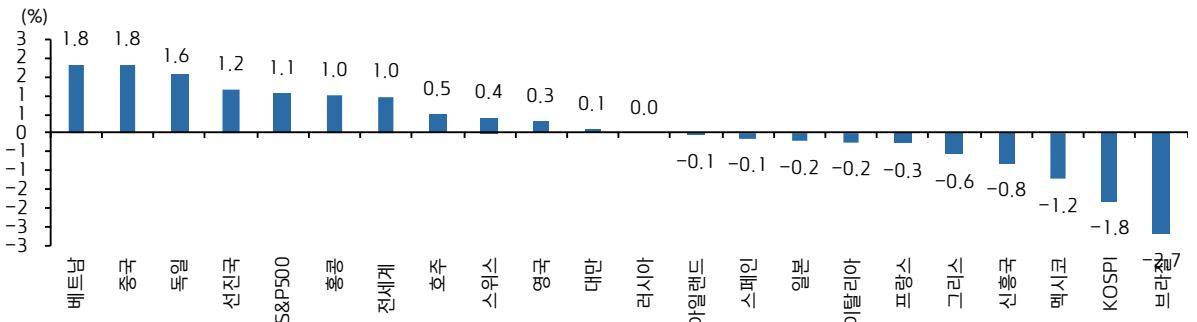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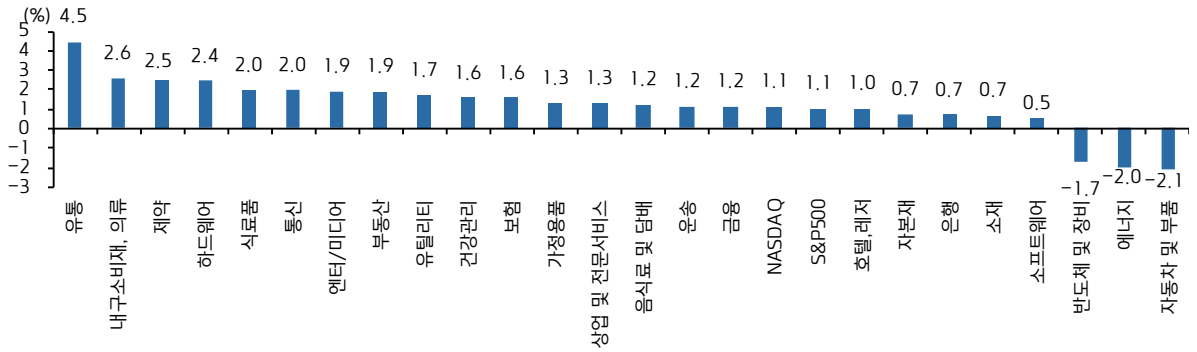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